  나는 미지수이다. 수학을 하다 보면 미지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지수는 아직 값이 결정되지 않는 수로, 계산을 통해 구해내는 것이 목표가 된다. 이처럼 나의 인생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나는 아주대학교에 다니는 25살의 남학생으로 4학년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고 소프트웨어 학과로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어려서부터 수학이 특기이고 영어로 말하거나 영어로 된 글을 읽을 수 있다. 또한, 계획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최대한 약속이나 마감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많은 정보가 있지만,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정보가 아주 부족하다. 내가 모르는 나의 특징, 장점, 단점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아직 내가 누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아직 나는 젊고,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이다.